

도시재생과 평생학습이 만났다

까치마을 배움으로 마을공동체 살려...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 사업은 부산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이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3년째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사하구의 평생학습빌리지는 까치마을에 터를 잡았다. 괴정2동 까치고개 행복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평생학습이 이뤄졌고 그 결과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가 뒤따랐다.

까치마을은 고지대, 대중교통 부재 등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다. 사하구는 이곳을 평생학습을 통해 활성화 시켜

보자는 취지로 2015년 부산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학습 빌리지 활성화 사업'에 공모해 3년간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평생학습 빌리지 활성화 사업은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어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 모락모락 건강 한창차, 향기 디자이너 등 7개 프로그램에 어르신 등 18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 올해에도 몽당연필 한글교실, 까치마을 공유경제로 살리기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엔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까치마을, 배움으로 살아 숨쉬다'는 전시회가 열렸다. 마을 주민과 수강생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음식들로 문화 축제를 만들어 나간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까치마을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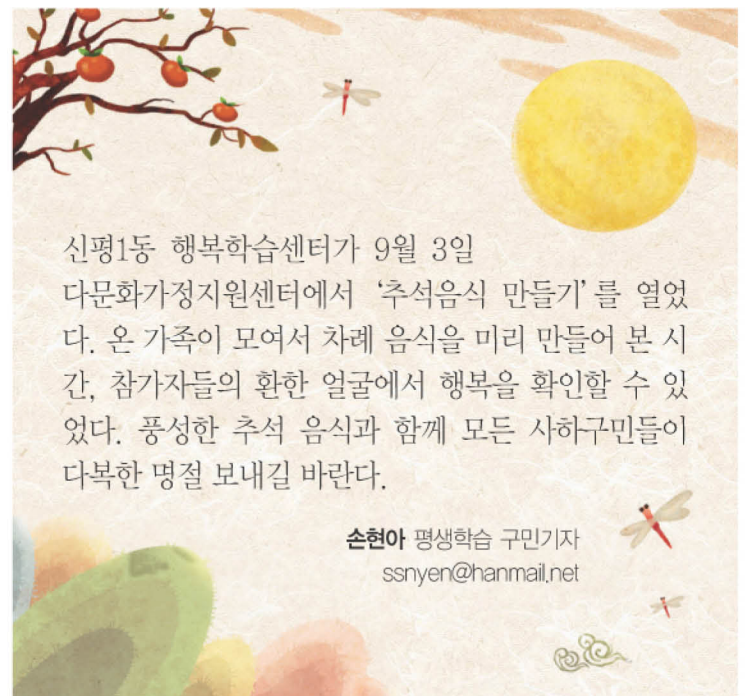
날다!'라는 마을 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도출된 까치마을 발전을 위한 10가지 실천 약속을 계단에 새겼다. '까치가 물이다 준 박씨-박공예·목공예' 수업을 통해 만든 공동 작품과 까치마을에서 재배한 박을 활용한 공예품 등이 전시됐다. 또 '이야기 향기 가득한 까치마을 만들기' 수업에서는 수강생들이 마을을 걸으며 직접 찍은 사진과 그 곳의 이야기를 담은 향기 지도를 만들었으며,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개설된 '몽당연필 한글교실'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북아트, 시화를 전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까치고개 행복마을 이형부 운영위원장은 "작년에도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우리들의 잔치로 진행돼 의미가 있고 평생학습 빌리지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머물게 됐다."라며 이번 행사의 소감과 함께 "수업 중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향기 제품과 목공 수납함 등은 연말에 소외계층에게 나눌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까치마을이 3년 지원이 끝나도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열리고 주민 강사가 재능 나눔하는 평생교육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학습공동체가 박이 열리듯 풍성하게 열매 맺길 기대한다.

최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행복한 추석음식 만들기



신평1동 행복학습센터가 9월 3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추석음식 만들기'를 열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 음식을 미리 만들어 본 시간, 참가자들의 환한 얼굴에서 행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풍성한 추석 음식과 함께 모든 사하구민들이 다복한 명절 보내길 바란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배운 것 지역사회와 나눈다



사하구 주민강사 31명 위촉



사하구 학습 나눔 발대식이 8월 25일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주민강사를 위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촉장을 받은 주민강사 31명은 배운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학습한 것을 다시 지역 사회에 되돌려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주민강사는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통해 학습을 수료한 후 선발과정을 거쳐 합격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자격증 보유 이외에 지역 봉사활동, 재능기부와 같은 경력과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선발

하였다고 한다. 주민강사들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천지아파트 경로당에서 강의하고 있는 황순선 씨는 강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한다.

학습 나눔을 통해 성장하는 그들의 앞날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배움과 나눔 문화 확산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 학습재능 기부

사하구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동아리 연합회)가 지난 4월 출범하였다. 동아리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늘봄 풍물단' 박성환 씨가 선출되었다.

동아리 연합회는 학습동아리 간 역량을 교류하고 연대함으로써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었다. 또 평생학습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다양한 내용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봉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만들었다. 현재 늘봄 풍물단, 날도래 강도래, 선물포장 리센 등 총 15개 동아리가 가입했다. 만약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다면 동아리 연합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사하구 평생학습관에 신청하면 된다.

동아리 연합회는 7월부터 9월까지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알리고 함께 배우고 즐기는 평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재능기부 형식의 여름방학 특강을 운영하



였다. 특강에는 향아리, 종이비행기, 날도래 강도래, 탈무드 Think&solve 사하 ONE, 선물포장 리센 동아리 회원 25명이 참여하여 나만의 향초 만들기를 시작으로 이

야기 종이접기, 에코 자연물 만들기(브로치, 꽃잎 염색 손수건), 탈무드 수학체험, 양갱 만들기 등 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특강으로 초·중·고·대학생, 성인, 가족 등 총 478명이 수강하였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가족들과 추억을 쌓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동아리 연합회는 9월 22일 제5차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함께 참가한다. 박람회에서 여러 홍보체험관을 살펴보고, 동아리 전시회 및 발표회 감상 등 다른 지역의 우수 평생학습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강경화 평생학습 구민기자
wy0823@naver.com

사이버 교육으로 자격취득 쉬워져

민·관 평생교육 운영 협약

사하구는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관 평생교육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자격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하구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국지식교육협회와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주민·직원들에게 약정된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국지식교육협회는 민간자격증 과정 온라인 무료 수강 19개 과정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사하구 평생학습관·사하구 홈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 관내 평생학습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부터 홍보를 시작한 온라인 평생학습 과정에는 현재까지 약 500여명이 수강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시간이나 금전적인 이유로 평생학습관이나 지역 내 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수강 희망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국지식교육협회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과정 수강시 수강료 60% 할인 (수강료 2,400천원 ⇒ 960천원)	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방과후지도사, 아동음악심리상담사, 모래놀이상담사, 아동미술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미술심리상담지도사, 독서지도사, 아동폭력예방상담사, 인성지도사, 이미지메이킹, 스피치지도사, 손유희지도사2급, 가족심리상담사, 자기주도학습코치, 아동요리지도사, 캘리그라피지도사, 클레이아트지도사 (미협약시 각 과목당 30만원씩 개인 부담)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수강생이던 주민들 교육 기획자가 되다”

주민 손으로 만든 평생학습 열려

“팀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로 의견도 나눠보며 즐겁게 수업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나만의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계선(68세) 씨의 소감문을 발표로 ‘내 손으로 만드는 평생교육’ 수업이 지난 8월 모두 끝났다. ‘내 손으로 만드는 평생교육’은 마을 주민의 요구와 자원 분석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과정이었다. 인문 교양 강좌나 직업 능력 강좌와 같이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세대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어울려 모둠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수강생들은 평생교육의 개념과 기획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 기획도 해보고 서로 평가



도 해보며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참여할 수 있었다.

수강생들은 각 모둠별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칭

‘불타는 화요일 별주부전’과 직장인 남성들을 위한 ‘청바지(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4050 만남’, 아이가 있는 가족 대상인 ‘애들아 놀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향후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특강으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특강 일정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전문 기획자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그 가치와 노고를 알 수 있었다. 수업 대상자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주민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과물까지 낼 수 있는 훌륭한 강좌였다. 앞으로 진행될 주민들이 만든 강좌가 알찬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동화구연가 조신이씨를 만나다

“열정으로 도전하는 조신이”



하늘이 유난히 맑은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 조신이 씨(46세)를 만났다. 장림홈플러스에서 리더스

디베이터 동아리 회원들과 ‘사하구 평생학습관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토론캠프를 진행하고 있었다. 4시간 수업의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는 조신이 씨와 20명의 학생들은 토론을 통한 만장일치 수업을 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토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수업에 마치고 나가는 학생들의 얼굴에 즐거움과 만족감이 느껴졌다.

조신이 씨는 색동어머니회에서 10년간 활동 중이다.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가진 그녀는 동화구연 자격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10년 전 집근처 교회문화센터의 ‘동화구연교실’을 듣고 강사님의 색동어머니대회 권유로 참가해 입상을 하였다. 이후 2년간 봉사 후 셋째를 가지며 육아에만 전념했다. 막내가 다섯살 때 다대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동화구연가 길을 걷게 되었다.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손을 들고 대회에 나가

겠다고 했는지..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잘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나지만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잡았던 게 감사합니다.”라고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조신이 씨는 도서관 학부모 사서, 유치원의 동화수업, 방과후 논술수업을 했고, 다대사회복지관과 인애사회서비스센터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동화야 놀자’ 수업도 진행한다. 작년에는 색동어머니 인형극 단원으로 활동하며 복지관 등에서 공연을 했다. 지난 여름에는 극놀이체험전에서 그림자극을 진행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아파트 입구에 붙여진 안내문을 보고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강좌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2014년 ‘수업컨설팅 자격과정’ 수료를 시작으로 아동안전지도사, 디베이트 교육전문가, 효인성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강좌 수료 후 같이 공부한 분들과 동아리를 결성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아동지원센터에 재능기부도 한다.

조신이 씨는 열정과 도전으로 달려왔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도전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화합과 소통의 장

주민자치 어울마당 열려 ~~



▲ 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신평 2동 공연



▲ 전시회장 관람

2016년 주민자치 어울마당이 9월 8일~9일 목요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구민 간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와 동아리 발표회로 진행되었다.

전시관동에는 괴정1동을 비롯한 16개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작품이 전시되었다. 발표마당에는 16팀이 참가하여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실력이었다. 대상은 성악을 선보인 신평 2동 ‘모래톱 마을, 음악에 빠지다’ 팀에게 돌아갔다. 참여자들은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워 재능을 다시 환원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는 반응이었다.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연극으로 소통하며 서로 보듬다

시민연극제 금상에 빛나는 극단 배우로 배우다

유난히 무더웠던 8월 21일 일요일, 정기모임 중인 극단 '배우로 배우다' 연습실을 찾았다. '배우로 배우다'는 2014년 사하구 평생학습관이 개설한 '배우로 배우다-연극스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평생학습 동아리이자 시민극단이다.

'배우로 배우다'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극단이나 전문연출가의 도움없이 구성원들이 작품을 선택하고 연습과 무대연출까지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크고 작은 마음 속 상처를 치유 받았다고 한다. 작품을 선택할 때도 재미 위주가 아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족을 소재로 한 현대물 중 각자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를 고른다고 한다. 올해 5월에 열렸던 을숙도 연극열전에서 공연한 '아름다운 사인'도 그런 절차로 선정했고 각색했다.

'배우로 배우다' 구성원들은 연극을 통해 높아진 행복감과 자존감이 일상생활에 큰 힘이 된다고 한다. 생애 첫 무대에 섰던 김희경(53세 신평동)씨는 "작년은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고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픈 것이 있으면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했다.



이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김수정(45세 괴정동)씨는 "사회생활로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겨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라며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과 감정을 찾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또 연극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김소연(37세 괴정동)씨는 "아이 3명을 키우면서 묻혀있던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무대 경험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많이 느꼈어요."라며 연극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만족하고 있었다. 김소정(37세 괴정동)씨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찾고 있다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니 다른 사람에게 감

정을 드러내는 일도 쉬워졌다고 털어 놓았다.

전문가들의 지도 없이도 '배우로 배우다'는 특별한 결실을 맺기도 했다. 2015년 처음 참가한 시민연극제에서 '아버지'로 최우수 연기상과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 4월에는 '노인 새 되어 날다'로 연출상과 또 다시 금상을 수상했다. 박성희(40세 괴정동)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며 "처음 참가했을 때는 연습실이 없어 키즈 카페, 학교 운동장 어디든 연습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문을 두드렸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연습을 했고, 공연을 하고 싶다는 절실함 때문에 무대에서 진실한 내면을 보여 줄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자신들이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남자회원의 참여라고 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박성희 대표(010-3413-3180)에게 문의하면 된다.

소통과 감정의 나눔이 몸에 밴 '배우는 배우다'. 배려가 부족한 시대이다 보니 이들의 활동이 더욱 빛이 난다.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구성원들의 이구동성을 들으며 '배우로 배우다'의 승승장구를 예감했다.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학점 모아 학위 취득

학점은행제로 평생학습 꿈 이룬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학점을 누적하는 것이다. 누적된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또 광역시 이상 17개 시·도 교육청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은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송부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선택한 학점인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

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 학사 학위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위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방식이 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운영제한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관련 상세한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을 참고하면 된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똑똑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소비자상담은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세요



7월 똑똑한 소비생활을 위한 강의가 사하구평생학습관에서 열렸다. 한국 소비자원 최주승 대리는 소비자 피해 대책법을 강의했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보이콧, 소비자 피해 대처 방법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많이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경우와 달리 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찾아와 물건을 판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TV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전화연

결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통해 사업자 측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명하면 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는 시간을 지체할 경우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민사분쟁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을 통해 무료로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단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가격격(www.price.go.kr) 등을 통해 현명하고 유익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국번없이 1372

Tip

학점 은행제 이용대상

- 일반인 누구나 (고졸자의 경우 수능시험과 관계없이 입학 가능)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 졸업장은 없으나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으나 새로운 분야의 전공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